

돌려 읽고 싶은 책 '거시기 봉투'에 넣어 함께 읽자



책 공유 프로젝트 '거시기'를 진행중인 청년문화 허브 회원들.

청년문화 허브 '책 공유 프로젝트' 시작

어쩌면 내일 당신의 집 앞에 '책' 한권이 담긴 '거시기 봉투'가 놓여있을 지도 모른다. 자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이나 카페, 공원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 봉투엔 '누구든지 열어보세요'라 적혀 있으니 부담 없이 내용물을 확인하면 된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청년문화 허브(이사장 정두홍)가 책 공유 프로젝트 '거시기'를 시작했다.

'거시기 봉투'는 가지고 있기에도 버리기에도 애매한, 나에게 필요없지만 다른 이에게는 필요한 무언가를 넣어 이웃과 나누기 위한 '공유형 선물 주머니'다. 일상 공간에서 '공유 문화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는 '책 공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책이 아니라 더라도 처리하기 거시기 했던 물건도 넣어 도 된다.

프로젝트는 "책꽂이에 먼지만 쌓여가는 책들의 기분을 어떻게, 이런 책들이 새로운 세상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보자"라는, 조금은 엉뚱한 상상에서 출발했다.

정류장·공원·개별 배포 다 읽은 책 다시 내놓고 필요없는 물건 넣어도 돼

"책을 좋아하는데 집에 책이 많아지는 게 부담이었어요. 참 재미있게 봤는데 소설은 한번 읽으면 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고서점에 팔거나 기부하는 것도 사실 좀 귀찮기도 하구요. 어느날 생각했어요. 날마다 우리 집 앞에는 치킨 광고가 걸려 있는데 그런 광고를 대신 '책봉투'가 걸려 있으면 어떨까 하구요. 좋은 책은 돌려 보면 좋잖아요."

청년허브 정두홍 이사장은 늘 '재미있는' 일을 궁리하던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

청년문화 허브는 자체 독서모임에서 부터 시작한 백영옥의 '실연당한 사람들의 일곱시 조찬 모임' 등의 책이 담긴 갑작스러운 주머니를 이곳 저곳 배포중이다. 현재

문화살롱 배라배라뽀, 카페이랑, 나미야 우체통(전대점, 삼다점, 상무점) 등에서 만날 수 있으며 개별 배포도 진행중이다.

'거시기 봉투'에는 누군가와 함께 읽고 싶어 넣은 책 한권과 거시기 안내장, 엽서, 스티커 등이 담긴다. 책 주머니를 받은 사람은 책이 마음에 들 경우 읽은 뒤 봉투에 넣어 다시 버스 정류장, 공원, 카페, 개인 사무실, 집 등에 내놓으면 된다. 이 책을 함께 읽고 싶은 이유 등을 엽서에 적어 보내면 금상첨화다.

만약 책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 들어 있을 경우엔 필요한 사람이 가지면 된다.

거시기를 발견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프로젝트 거시기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전체 공개로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상품도 증정한다.

정대표는 "누군가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릴레이식으로 함께 읽어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함께 나눌 책도 협찬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홈페이지 : www.culturehub.kr. 이메일 : culturehub@daum.net. 문의 062-415-35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으로 가을마실 떠나볼까

광주호 호수생태원 일대 21~22일 '관광문화제'

이번 주말에는 무등산으로 가을마실을 떠나볼까?

무등산권 일대를 가을 정취로 가득 채울 '2017 무등산 남도피아 가을마실 관광문화제'가 21일부터 22일까지 광주호 호수생태원 일대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가을마실 관광문화제'는 국립공원무등산과 광주호 주변 생태 숲, 누정, 가사문학 자원 등을 연결하는 '남도피아'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행사는 풍류남도나들이, 전시 및 체험, 문화예술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21일 오후 2시부터 광주호 생태원 일명무대에서 한바탕 신명나는 전통타악 광대 길놀이와 판굿을 선보인다. 이어, 무등산호랑이춤 공연과 호랑이탈 체험, 빅사이즈 크루의 전통음악에 스트릿댄스를 결합한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왕버들나무 앞 공터에서는 오후 2시



지난 5월 봄마실 관광문화제 모습.

30분부터 30분 클래식+재즈앙상블 'WE', 더블루-이어즈가 가을에 어울리는 재즈와 가요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22일에는 오후 2시부터 전통타악 길놀이 시작으로 전자바이올린과 함께하는 팝페라, 혼성 아가펠라그룹 'THE PRESENT', 성악과 비보이 콜라보레이션 공연, 마임극단 동심의 비눗방울 퍼포먼스 등이 이어진다. 풍류남도나들이는

충효왕버들 앞에 마을주민 장터를 열어 핫도그, 솜사탕, 커피 등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전시 및 체험에서는 무등산 분청사기 1000여 점과 평촌분청 150여 점이 전시되고 시민들이 직접 도예와 물레체험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생태공원 원형광장 옆, 오후1시~오후5시)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전당을 한눈에

뷰폴리 오늘부터 개방 영상복합문화관 옥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의 광주폴리뷰폴리 '자율건축' (사진)이 20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광주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옥상에 설치된 '자율건축'에는 독일 미디어아트그룹인 리얼리티즈 유나이티드의 팀 에들러&안 에들러와 한국의 건축가 문훈이 참여했다.

6층의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 들어서서 건물 엘리베이터와 뷰폴리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작품이 설치된 옥상에



올 수 있다. 별도 출입문과 비상계단을 통해서도 작품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평일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9시까지다.

작품은 강렬한 마젠타와 옐로우의 스트라이프로 뒤덮인 계단과 기둥이 회전

하고 색이 변하는 33개의 트리비전으로 구성됐다. 직접 트리비전을 회전시키면 서전당과 광주 시내 전경 감상이 가능하다. 뒤쪽 방향에서는 전망대를 통해 무등산과 마주할 수 있다. 문의 062-608-4265/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금주 작 '담쟁이 여인'

청동회 정기전 23일까지 북구 자미갤러리

1980년 창립한 청동회는 매월 자연을 찾아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왔다. 올해는 특히 그림을 사랑하는 일반 시민들이 함께 동참했고, 그들과 함께 전시회도 연다.

청동회(회장 이금주) 36회 정기전이 오는 23일까지 광주시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함께 그리다'로 오랜 인연을 맺어온 회원들과 더불어 북구정 지원 사업 '나도 화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평소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참여 시민들은 매일 낮째

주 야의 스케치에 나서는 청동회 회원들과 함께 나주 유채꽃밭, 곡성 등을 찾아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문을 받고 있는 노의웅, 양원철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김광래·설경임·최용석·김정철·송지운·한철환·박희경씨 등 청동회 회원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화가들의 야외스케치'를 동경했던 일반 시민 이지은·김은희·허명자·문율아·이유섭·박신애·안은성씨의 작품도 전시된다. 문의 062-410-83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양화가 이정주 개인전

25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



'들꽃'

화폭을 가득 메운 건 화사한 꽃이다. 저마다의 개성으로 핀 꽃들은 다양한 색감과 자태로 관람객을 유혹한다.

서양화가 이정주 개인전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갤러리에서 열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라봐도 서운치 않을'(정영복 '들꽃의 노래' 중) 들꽃을 소재로 오랫동안 작업해온 이씨의 17번째 '들꽃 이야기'전으로 아네모네, 장포, 유채꽃, 송엽국 등 다양한 꽃을 만날 수 있다.

'벌치녀', '사랑', '가족' 등의 표제를 단 작품 역시 마음을 화사하게 만드는 꽃들을 소재로 작업했다. 베트남의 유적지, 캐나다인 로키 등 이국적 풍경을 담은 작품도 전시된다.

이화여대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이씨는 한불 상젤리제전(파리), 아키타국제전(일본)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광주대 예술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국여류화가협회 이사, 그룹터, 전우회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232-71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증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이행

기간 · 9월 1일 ~ 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